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 연구

A Study on The Contextual Meaning of Family Leisure for Human Life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 수 지 영 숙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전공

이 태 진* 김 선 미·전 희 정** 최 보 아***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 : Young-Sook, Chi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

Tae-Jin, Lee. Sun-Mi, Kim. Hee-jung, Jun. Bo-A, Choi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V. 가족여가에 대한 학제적 관점의 적용 |
| II. 여가의 일반적 정의 | V.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 |
| III. 여가에 대한 학제적 탐색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ve effect of family leisure in human life.

We adopted ecological-system approach, theory of structure to family life and analyzed meaning of leisure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Family leisure has not only positive effect on home but also it's subsystem. Consequently, family leisure as vital power of living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life quality.

* 박사과정, ** 석사, *** 석사과정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가정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많은 가정이 범죄와 폭력, 도덕성의 파괴, 유해환경, 자유시간의 부족 등 가정을 흔들리게 하고 해체되게 하는 많은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정보화의 발달은 우리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극도의 개인화를 촉진하고 윤리성을 마비시키면서 인간성을 좀먹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많은 가정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삶의 질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적인 협력기구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두고 있는가 하면, 삶의 질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복지 지표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가”는 이미 생활의 질을 판단해주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부각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의 통합성과 기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가족이 중요한 여가집단으로 기능하여서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예방과 축소를 위한 해안으로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가족여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패러다임의 조직은 네트워크형이고 직렬보다는 병렬사회에서 적용되는 창조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가족생활 또한 현상유지적 협조관계를 넘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발상과 형태가 요구된다.

가정을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생활은 사회·심리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의 상호관련성을 갖는 유기체이며, 또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하위체계간에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호관련성을 만드는 통합적 유기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여가에 관한 생활적 의미를 살펴봄에 있어서 각 하위체계가 지향하는 바에 접근하는 제학문의 영역에서 여가를 탐색해봄으로써 여가의 다차원적인 의미를 새기고 이를 통합하여 가족여가가 가정생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각적으

로 조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가족여가를 통해 건전한 가정생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또한 가족원 모두의 몫이고, 가족자원을 창출해야 하는 의도적 관리의 핵심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다차원적이면서 통합적 체계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에 가족여가가 지니는 생활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그 어떤 현상에 대한 다면적, 통합적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심이자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여가에 관한 이론적인 기초작업으로 가족단위로서의 여가가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단위의 여가행동을 조사하는 실증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의 의미를 분석하여 가족여가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증진시켜 건강한 가족생활체를 만드는 데 기여됨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II. 여가의 일반적 정의

여가를 나타내는 영어인 Leisure는 라틴어인 licere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자유스러워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여가는 생계를 위한 구속적 일에서 자유스러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유허제공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암시한다(이효성, 1997). 또한, 여가를 나타내는 그리스어인 schole는 생활공간으로부터의 해방, 평화, 평온, 남는 시간(spare time), 의무로부터 구속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라틴어에도 여가를 나타내는 otium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극적인 무위상태가 강조되고 구속적 노동과 생산적 소비를 특징으로 한다(松田義幸, 1981).

이상 세 가지 의미를 비교해 보자면, schole를 자유시간의 개념이라 본다면 licere는 자유정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schole가 평화나 평온을 의미하며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상태가 강조되는 적극적인 여가를 의미하는 반면, otium은 생계노동에서 해방되어 휴식을 취하는 소극적 여가를 의미한다(이효성, 1997).

여가는 그 유래만큼이나 개념도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가는 그것을 정의하는 사람이 어떤 철학과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문숙재, 1996). 일반적으로 여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방식으로 정의된다.

첫째는 시간적인 정의인데 이는 생활필수시간과 노동시간 등의 구속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으로 자유시간, 비의무적시간, 자의로 선택한 시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정의는 가장 보편화된 정의이며 현대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시간적 정의는 제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 시간에 어떤 내용의 경험을 하느냐 하는 여가의 질적인 면을 포괄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둘째는 활동적인 정의이다. 이는 자유시간 중에 행하는 자발적 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공동사회의 임무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는 활동 및 각종 레크리에이션(recreation)활동 특히 위락적(爲樂的) 측면을 강조한다. Wylson(1980)은 여가를 활동과 기회요소로 인식하였는데, 즉 “여가란 노동, 가정, 사회 및 기타 의무가 실현되고 난 후에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휴식, 오락, 자기실현, 정신적 재생, 지식의 향상, 기술의 개발, 사회활동의 참여를 제공해 주는 기회”라고 하였다(김광득, 1997 재인용). 이러한 활동적인 정의는 활동의 종류를 분류하고 빈도를 연구하는데는 유리하지만 여가경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TV 시청은 수동적 여가활동으로 보통 규정지어지기 쉬우나, TV활동을 통해 지적, 정서적 능동성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외형적으로만 정의되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상태적인 정의인데, 이는 조금 더 주관적이고 심리적이며 철학자, 심리학자, 종교학자들에 의한 정의로서 여가를 주어진 시간이나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마음의 상태이자 자유의 지주로 간주한다(이효성, 1997). 이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가를 ‘자기실현의 기회’로 간주하고 사색, 지식 계몽을 위한 토론과 정치를 여가의 대표적 예로 들면서 시작되었으며(Bammel & Bammel, 1980), 그 후 Neulinger

(1974)는 여가경험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기준으로 ‘자유감 지각’ 외에도 경험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들었다. 이런 상태적 정의로서의 여가는 여가의 질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느낌 자체를 여가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며 제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네번째로 제도적 정의의 여가가 있다. 이는 여가의 본질을 노동, 결혼, 교육, 정치, 경제 등 사회제도의 상태나 가치 패턴과 관련지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M. Kaplan은 여가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간 영역, 심리적으로는 윤택함이나 회상, 잠재적으로는 모든 영역의 의무와 노력을 포괄하여 독특한 규범과 제약을 수반한 위락, 개인발전, 타인에 대한 기여를 지닌 자율적 활동 경험”으로 규정하였다(Mills, 1970 : 김광득, 1997 재인용). 또한 Veblen은 여가를 “사회의 계급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상류사회 계급의 상징”으로 보고, 이를 비생산적이며 금권의 과시적 소비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여가의 사회적 기능이나 가치를 고려하여 그것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파악하는 것은 여가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여가를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여가의 특정 속성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이효성, 1997).

마지막으로는 포괄적 정의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속성 각각으로는 여가의 본질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 네 가지를 포괄하는 정의로 여가의 시간적, 활동적, 상태적, 제도적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다. 즉 여가는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게 되는 시간”이라 정의된다(김광득, 1991).

이처럼 여가는 인간의 생활이 역동적인 생활 유기체이므로 어느 한 면만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정의에 접근할 수 있다.

III. 여가에 대한 학제적 탐색

1.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

고전적 의미에서의 여가는 단지 일하지 않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의미의 여가는 모든 문명에서 모든 경우에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가를 조금도 갖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여가는 인류역사에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사회·경제적인 구조변화에 따라 여가의 의미가 달라질 뿐이다(심윤중, 1995).

사회·경제구조와 자연환경의 산물을 문화라고 할 때, 여가는 그 사회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사회·문화적 현상이 된다. 따라서 여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며, 여가가 발생하는 문화(주어진 문화의 주된 흐름)를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회학적 관점으로 여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변천에 따른 여가의 의미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소수의 그리스인들에 의해 향유된 여가는 다수의 노예를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기독교시대(Christian era)는 생산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로 이때의 여가는 노동에서 오는 긴장감 해소의 수단으로서 기도와 묵상에 의해 흡수된 비교적 단색화된 여가였다. 문예부흥시기(Renaissance era)는 다소 여가의 황금기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단지 귀족들만을 위해 존재하였을 뿐이었다(김진탁·김원인, 1997).

우리의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의 여가를 살펴보면 주로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적 시간에 따라 농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농한기에는 집단적인 축제를 통해서 여가를 즐기기도 했다(박승희, 1995). 그런데 농경문화의 여가 역시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보편화된 여가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서민층(피지배계층)은 여전히 농기계가 발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노동력을 생산에 쏟아 부어야만 했으며, 여가를 보내는 공간과 시간이 구별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가는 독자

적인 의미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양반(지배계층/귀족)보다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적었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시기의 여가는 주로 소수 상위계층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여가는 산업화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변하게 된다. 산업화는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민주주의적 평등사상을 통해 여가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전 사회구성원의 것이 되었다. 드디어 20세기 대중여가의 여명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화, 도시화의 문화속에서, 사람들은 기술이 가져다 준 노동절약 고안장치에 의해 그 편익을 즐기기 시작하였고, 스포츠나 사고 등의 여가를 향유할만한 풍족한 시간문화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전자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후기산업시대라 일컫는데, 최근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여가는 '사유화(privitization)', '개별화(individuation)', '상업화(commercialization)'의 경향을 띠면서 더욱 더 대중 속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Rojk, 1985; 심윤중, 1995 재인용).

그러나 시간의 풍요로움 속에서 현대사회의 여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대중화 아래 상품논리에 지배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자연적 시간변화에 따라 완만하게 진행되던 노동(가족적인 집단노동)으로부터 오는 화목하고 사교적인 보상은 산업사회로 와서 오히려 사람들간의 거리감이나 기계에 대한 소외현상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여가의 일탈현상을 수반하게 되어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흔히 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미래사회는 컴퓨터가 생산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하이테크 생산'으로 인간의 노동시간은 더욱 더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여가는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사회성과 군집성을 갖는 존재이다. Maslow의 욕구단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인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습득하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욕구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타인이 필요한데, 이 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맺는 1차 집단인 가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즉, 인간은 가족이라는 최초 집단에 속함으로써 인정받고 안정감을 취하며, 존재감을 획득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책임감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가족은 특히 현대사회의 소외된 개인에게 있어서 의미심장한 사회집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여가는 그 특징이나 성격을 설명하고 정의함에 있어 노동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노동과 여가와와의 관계에 접근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노동과 여가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이며 비슷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노동과 여가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비슷한 활동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과 여가 사이에는 부정적인 혹은 상이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보상, 경쟁 혹은 대조적인 성격을 띤다. 즉, 노동을 위해 여가를 갖는대거나, 여가를 갖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 등 서로 상반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셋째는 노동과 여가는 단순히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미치는 관계가 아닌 중립적인 관계라는 것이다(서태양·차석빈, 1996).

박승희(1996)는 노동이 여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 나라 노동자들은 대체로 여가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으며 긴 노동시간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적극적인 여가보다는 소극적인 여가를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여유 있는 여가를 즐기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의 불만족에 대한 반감으로 여가에 참여한

다기 보다는 여가를 통해 고통과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대립시킬 여유를 가지고 여가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노동과 여가 사이에는 어떤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생산적이 경영관리직이나 사무직보다 소극적인 여가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노동과 여가 사이에는 상반되는 어떤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여가와 일은 비슷한 성격 뿐만 아니라, 상이한 성격을 띠므로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특히 시간적인 측면의 연구들에서는 일과 여가가 대립적이란 관점이 좀 더 보편적이다.

노동과 여가를 대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노동을 생산활동이라고 한다면 여가는 소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night(1921)와 Pigou(1920)는 여가와 노동은 대체관계에 있으며 여가는 노동시간의 여분이고 그 자체로 소비재라 하였다(정현식, 1995 재인용). 또 Veblen(1899)은 여가를 부와 소득을 생산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소비이며 과시적 소비를 일삼는 부유층 엘리트 지위의 상징으로 보았다(정현식, 1995 재인용). 이처럼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에는 '노동을 위한 여가'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여가는 사치적이고 과시적인 과소비처럼 인식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신소비자 선택이론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여가를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었다. 여가를 시간과 재화를 필요로 하는 소비활동이라 한다면, '시간에 걸친 최적 선택(Intertemporal Optimal Choice)'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개인이 현재 여가를 희생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 일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을 얻기로 선택한 것이고 대신 미래에는 여가를 가지고 그 소득을 소비하기로 시간에 걸친 선택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cker, 1965; Linder, 1970; 정현식, 1995 재인용).

또한, 여가와 노동을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은 여가의 존재이유에 대해 논할 때에도 나타난다. 여가의 존재이유는 노동을 하기 위해 여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가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어서

이에 노동이 그 수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노동을 위해 여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였다. 이 관점에서는 인간의 일하는 능력 이른바 노동력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여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주 2일 휴일, 혹은 주 3일 휴일 등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건전하게 보존한다는 관점이다(김진섭, 1997).

반면 쾌락주의에서 여가는 그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쾌락인 여가를 가급적이면 길게 지속시키는 것은 인간생활의 효율성을 가장 증대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행위는 선(善)하다고 보았다. 반면 피땀흘려 노동을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장래에 미루고 일에 몰두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것이며 이는 악(惡)하다고 보았다(김진섭, 1997). 여가를 위해 노동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요즈음 다시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과 여가라는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여가가 필요하듯이 여가 또한 중시되고 추구되어짐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볼 때 가족원이 생기 있고 활기차게 가족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여가가 필요하고 그런 여가가 있음으로 해서 가족원들이 더욱 활력이 있어진다. 즉, 여가를 위한 노동은 곧 노동을 위한 여가가 되는 것이며, 노동을 위한 여가 역시 곧 여가를 위한 노동이 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된다.

3.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

여가란 개개인이 하는 행동이므로, 여가의 특성과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심리학적 관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여 준다. 즉, 개인에게 있어서 여가과정은 개인적이며, 목적 있는 행동(purposeful activity)이고, 끊임없는 심리적 과정이며, 바람직한 결과들을 가져다준다.

여가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은 ‘왜 여가를 하는가?’, ‘여가를 하는 동안 참여자는 무엇을 체험하는가?’, 또 ‘여가는 참여자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등의 물

음에 대한 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여가에 대한 심리적 의미는 여가의 동기적 측면, 경험적 측면 및 결과적 측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심리적 의미로서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가를 자기실현의 기회로 간주함으로써 심리적 경험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Bammel & Bammel, 1980). 그 후 Neulinger(1974)에 의하면 “여가를 보낸다함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수행된 활동에 몰입함을 말하며, 기쁨과 만족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 개인 존재의 중심 내면과 깊게 관련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여가를 자유로운 행위로서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여가경험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기준을 ‘자유감 지각’ 외에도 경험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의 요소로 보았다. 그의 심리학적 여가관은 느낌 자체를 여가로 본다. 또 Kelly(1990)는 여가란 느낌(feel) 자체라기보다는 느낌이 유발되도록 하는 것(do)으로서 참여자가 자신을 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활동이며, 이는 주관적인 경험 내용만 있고 외형적 형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내용은 없고 형태만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주관적인 경험내용과 객관적인 행동단위가 함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여가 현상의 심리적 측면과 경험의 단위(활동)를 적절히 통합한 것이다.

한편 여가는 심리적 의미의 측면에서 여가욕구와 여가체험과정, 그리고 여가의 결과로 나뉘볼 수 있다. 성영신 등(1996)은 여가동기로서의 여가욕구를 세 가지로 보았는데, 자기 결정감을 갖게 되는 자기결정의 욕구, 정신적·신체적 능력과 기술 및 지식의 정도를 확인하고 확장하려는 자기향상의 욕구, 여가를 통해 자기를 탐구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최대한의 기회를 경험하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또 그들은 한국인이 여가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내용이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 기술과 능력, 외모,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심리적 의미로서 여가 체험과정은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활동 지향적 체험, 사회 지향적 체험, 환경

지향적 체험, 정서적 체험, 회상을 말한다. 활동 지향적 체험에서는 자유감, 유능감, 신체적 역동감, 모험감, 일탈감을 경험하고 사회 지향적 체험에서는 자기표현감, 대인교류감, 고독감, 유행심리를 체험하고, 환경 지향적 체험의 여가에서는 대자연감, 편리함을 체험한다고 했다(성영신 등, 1996).

여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여가경험의 결과,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가 보충되고, 신체적 능력이 증진되며,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 능력이 발달되어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져 자신의 인지체계 확장이 이루어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배양된다.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가의 치료기능 역할은 안정감을 부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노인에게는 소외감, 우울, 무공감증 등을 극복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에게는 규범정신을 교육하고, 실업자에게는 정신적인 희망을 안겨주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이 장기적인 결과로 나타났다(성영신 외, 1996). 또 Unger와 Kerman(1983)은 여가경험이 내재적 만족, 감지된 자유, 깨우침, 자발성, 완벽성 등을 가져다준다고 하였고, 여가경험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보아 여가가 사회적 유대감, 벗어남·도피, 자연과의 교감, 신체적 자극, 지적인 욕망추구, 회상, 긴장의 이완, 즐거움 등의 결과를 가져다준다고도 보았다(조남홍, 1996 재인용).

인간다운 삶을 가꾸어 주는 것으로서 여가를 분석할 때, 심리학적 관점은 어떤 형태의 행동일지라도 개개인에게 주관적인 의미로 인간의 발달을 위해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의 결과를 통해 생활의 질은 만들어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4. 가정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

가정학에서는 여가를 가정자원의 분배 및 관리적인 측면과 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높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자원의 분배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간은 가족원의 욕구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문숙재, 1996)으로서 여가와 관련하여 시간분배 및 관리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한 양으로 주어지는 자원이므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질이 달라지며, 다른 자원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가시간의 양은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종류와 빈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부의 여가시간은 가사노동이나 자녀의 양육 등 주부역할 수행으로 인해 매우 단기적으로 분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가활동참여에 질적, 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Snyder(1979)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부간의 공통된 흥미와 함께 보내는 여가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이기영 등, 1995, 재인용). 최규련(1993)은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부부간의 대화가 높고, 부부공동의 여가가 많다고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여가비용과 관련한 생활만족도의 연구에서 김의숙 등(1993)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비용장애가 가장 큰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인숙(1996)은 가계의 자산상태 및 경제상태가 여가생활만족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여가비 지출 증가가 곧 여가만족도를 증진시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가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일수록, 여가자원에 대한 적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여가참여도가 뚜렷이 높아졌다(박은미, 1996). 또한 총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과의 관계에서는 부부가 함께 여가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등, 1995).

임정빈 등(1995)은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주부들이 여가활동 참여를 조사한 결과, '그저 그렇다'는 수준에 약간 못 미쳤으나 이들의 여가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여가시간 및 비용, 그리고 여가공간 등

여가자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여가자원에 대한 적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한경미(1995)는 기혼취업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여가생활만족도는 전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가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활동에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가족공동의 여가를 계획하는 방향으로 여가를 활용하여 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순미(1996)는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에서 여가비 지출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부부의 생활만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가비 지출과 부부 각각의 여가 만족도를 고려하여 부부공동의 여가나 가족여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여가생활양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생활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가정학의 관점에서 개인 및 가족 중심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여가생활과 관련되어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능력 개발, 자아실현 등 여가활동 본래의 기능 이외에 특유의 기능을 갖는다. 즉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의 배경이 되며,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은 여가 집단으로써 가족원에게 근본적인 자원이 된다. 앞으로 더욱 개별화되어 가는 생활에서 가족적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여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여가생활방식의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 인식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의 요구이자 중요한 경영자세가 될 것이다.

IV. 가족여가에 대한 학제적 관점의 적용

인간은 혼자서라도 여가를 즐길 수 있으나 사회적 존재로서 여가생활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한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특히 중요한 여가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실

제로 많은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이기영 등, 1995). 즉 여가참여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사회적 단위가 '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가족에 기초한 여가활동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책임감의 습득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가족단위의 여가가 여가의 일탈화 현상에 대한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한다.

후기산업 사회에서 여가의 일탈화, 즉 무절제하고 지나친 상업주의적 오락의 심화, 그리고 또 생활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가족공유시간과 공간의 부족, 의사소통 기회 부족 등은 가정생활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여가행태를 돌아해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일에서의 스트레스를 과음으로 달래거나, 휴일이면 집에서 잠으로 시간을 보낸다거나, 혼자 낚시여행을 떠나 버리기가 일수이고 부인은 부인대로 계모임이다, 고스톱이다, 관광이다 하여 도박판을 벌이거나 퇴폐적 관광을 하여 사회문제로 입에 오르내렸다. 또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폭력이 난무하는 전자오락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실상이었다.

이러한 개별적 여가행태들은 가족체계의 위기 혹은 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며 가족원간의 공유 시간 및 공간을 빼앗아 가족의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이 때 개별화된 여가에서 탈피하여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이러한 부정적 여가동향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철학적 흐름은 분석적 사고에서 통합적 사고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오늘날 가정의 현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체계론적 접근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학제적인 연구 및 관점 또한 어떠한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하는데 유효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체계는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기능체로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능하는 부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 역시 가족원의 삶의 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는 사회·심리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

다. 가족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가정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정환경과 교육·경제·종교·의료·오락·행정 등의 활동을 하는 근접환경, 그리고 보다 큰 사회 혹은 문화인 광역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체계들은 가족체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혹은 가정이 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지영숙, 1998). 이렇게 볼 때 가정생활은 통합시스템(Total system)이고 동적인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러한 가정을 조직론적·관리론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가정은 개인 및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체계와 물리적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통일적 경영체를 만들어냄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내부 조직을 위한 활동은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경영행위이고 바람직한 가정 조직체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 삶의 출발을 다지는 의식적 활동이다.

앞에서 학제적 접근으로 여가를 살펴본 바와 같이(3장) 가족여가를 가정의 생활체계에 적용해 보면, 그 생활적 의미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상호이해와 상호의존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고, 심리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로움과 본질적 자아를 재발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의미에서는 생활의 활력소로서 생산성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가정학적 의미에서 여가는 가치관 전달의 기회로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성 훈련의 장이 되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으로 책임감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져 개인적·가족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가족여가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가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이며 매개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은 사회생활, 심리생활, 경제생활 등 제반 생활에 있어서의 통일체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 각 하부 영역에서 요구하는 바가 충족되어야 한다. 각 하부 영역의 요구가 충족되고 상호작용될 때 가족원 개개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만족감과 생활의 질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 가족은 환경

과의 작용 그리고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체계활동을 통해 가족의 응집성, 기능성, 적응성을 높이는 목적적 활동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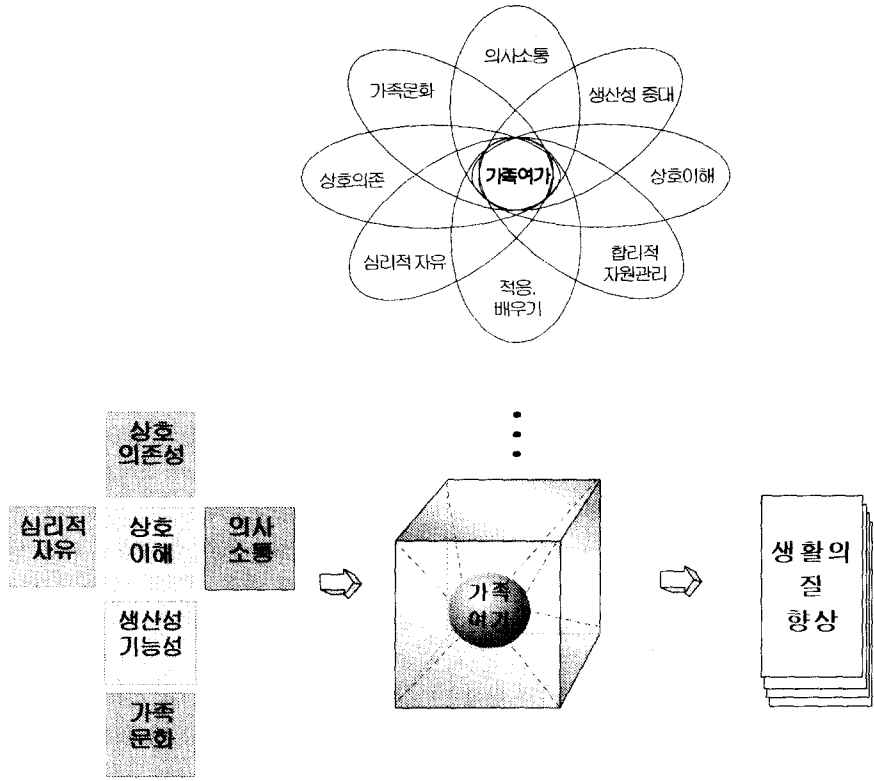
가정에서의 최종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은 가족원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win-win game) 이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관계를 수립하고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긍정적 에너지의 산출이다. 이것이 곧 시너지의 효과이다. 이는 체계이론에서 투입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산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너지(Synergy)라는 것은 개별체간의 협력, 협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발생하는 어떠한 에너지는 수리적인 개별체간의 합을 넘어선다. 즉 시너지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적어도 셋이상이 되는 상황으로 인간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생산적이며,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한 부분과 다른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분을 다루는 것이며 촉매처럼 역동적인 힘으로 각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 안에서 가족간의 유대의 수준과 본성을 가리키는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할 때 그들 사이의 유대에서 생기며 이는 또 다른 힘을 만들어낸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가족여가는 활동적 의미로서의 한정된 여가를 넘어서 개별활동 이상의 어떤 것을 함의하며, 가족여가는 이는 가족원 개개인에게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합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창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즉, 가정에서 가족여가를 통하여 가족원의 협동 내지는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에너지를 창출한다. 이로써 곧 가정생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되는 것이며 결국 가족원의 생활의 질은 향상되는 것이다.

V.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

인간의 삶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건강하고 활력 있고 아름다운 생활요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이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 에너지가 그 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그림 1〉 가족여가의 시너지 효과

는 그것을 가족여가에서 모색하여 보았다. 먼저 여가는 개인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가정생활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행해질 때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는게 본 연구의 출발이다.

전통적으로 가정은 노동을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소득을 얻어 운영하고 기본적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음으로써 그 구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정은 노동력 재생산과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접근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가정은 개인 및 가족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때 안정과 성공, 그리고 의미있는 삶의 실체로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는 Maslow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자기실현에 몰두하고 공헌할 수 있는 가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생활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이고 인간관계의 실천장이며, 삶의 질을 향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고, 의지하고, 책임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많은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그것 또한 개인적 삶에 많은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가활동이 가족단위 혹

은 부부단위로, 또는 부모 자녀의 단위로 이루어질 때, 그 과정과 결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의 여가활동은 가족의 이해와 행복을 가족공동의 것으로 만들며, 가족에게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주게 된다. 또한 가족으로 존중되고 안심과 신뢰의 배경을 만드는 소속감을 양성한다. 또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 능력 개발, 자아실현 등 여가활동 본래의 기능 이외에 특유의 효율성을 발휘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창출된 긍정적 에너지는 가족원 개인에게도 활력소가 되고 자원이 된다.

한마디로 가족 여가는 그 자체로서 가정이라는 생활체에서 여러 하위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생활만족에 기여함으로써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는 아름다운 가족문화를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가족의 내부와 외부를 향하여 커다란 공헌을 하는데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끝으로 가족여가를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서는 각 가정은 자신의 분수나 표준에 맞지 않게 계획을 한 경우 실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족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하고 적합한 내용의 여가활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행할 때 가족여가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족여가의 실천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유용한 가족여가의 활용방법과 의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힘써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광득(1997).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 2) 김명자(1995). 도시 중년기 여성의 여가와 여가선용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교석사학위논문.
- 3) 김사현(1997). 우리 나라 여가문화의 원형 탐구- 동서양 놀이문화의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3(2), pp.193-207.
- 4) 김순미(1996). 여가비지출이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pp.121-135.
- 5)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김외숙(1993).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장애자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7) 김진섭(1997). 현대여가의 이해. 서울: 대왕사.
- 8) 김진탁·김원인 편저(1997). 현대여가·위락론- Leisure & Recreation-. 서울: 학문사.
- 9)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서울: 학지사.
- 10) 박승희(1995). 현대 산업사회의 형성과 여가, 사회과학 34(2), pp.43-77.
- 11) 박승희(1996). 노동이 여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35(2), pp.268-299.
- 12) 백주현(1990). 여가선택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서태양·차석빈(1996). 여가론. 서울: 대왕사.
- 14)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 여가의 심리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9(2), pp. 17-40.
- 15) 松田義幸(1981). 現代餘暇の社會學. 東京: 誠文堂.
- 16) 심윤종(1995). 여가의 개념과 유형 및 여가이론, 사회과학 34(2), pp.15-40.
- 17) 안종수(1995). 도시가족의 여가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8(2), pp.199-218.
- 18) 여박동(1983). 여가의 생활사적 의미 변천에 관한 고찰. 공주사대논문집 사회과학편 21, pp. 49-63.
- 19) 윤광봉(1996). 전통여가의 현대적 수용양상-부남, 부안, 연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35(2), pp. 379-402.
- 20)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 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 회지 33(3), pp. 113-125.
- 21) 이영길(1991). 여가경험연구의 방법론적 대안-현상학 및 현장 경험론 접근. 경기 대여가생활연

- 구 3, pp.8-31.
- 22) 이정우(1997). 중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와 여가행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원경영학회지, 1(2).
- 23) 이효성(1997). 여가와 대중매체. 사회과학 제 36권(2), pp.95-129.
- 24) 임정빈(1990). 농촌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4(4), pp.135-153.
- 25) 임정빈 외 5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Ⅲ) :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 26) 임희섭(1984).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서울: 현암사.
- 27) 장윤희(1991).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정현식(1995). 여가와 경제. 사회과학 34(2), pp. 79-116.
- 29) 조남홍(1996). 실존현상학적 관점에서 살펴 본 여가개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pp.47-57.
- 31)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2)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pp.71-83.
- 33) Bammel G. & Bammel, L. L. B.(1980), 하현국 역(1993). 여가와 인간행동. 서울: 백산출판사.
- 34) Kelly(1990). Leisure(2nd edit). New jersey: Pretrice-Hall.
- 35) Neulinger(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Springfield III; Charles C. Thomas.